

3월 22일

뜨거운 마음의 비결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눅 24:32).

:

우리는 마음을 뜨겁게 하는 비결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불이 붙게 되고 우리는 엄청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뜨거운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타오르게 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비결을 배우지 않는다면, 지루하고 따분하며 재미없는 단조로운 일상 생활과 매일 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차갑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대부분의 번민은 죄 때문에 오기보다 자신의 속성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옵니다. 예를 들어, 감정에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말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판단 기준은, 그 감정으로 인해 야기될 결과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십시오. 만일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이라면 절대로 그 감정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성령에 의해 감정이 뜨거워졌을 경우 그 감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면 그 뜨거운 감정은 아주 낮은 차원에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감상적인 차원에 머물게 됩니다. 만일 그러한 감정을 적절한 수준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감정이 뜨거울수록 그 추락도 매우 깊고 상처도 심합니다. 만일 성령이 당신을 요동한다면 가능한 한 많은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산 상에서 계속 살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빛에 따라 현실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비전에 맞는 일들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우고 싶어도 태울 수 없네.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그 불.
성령이 숨을 쉬면 고요하지만 나의 영혼은 신비에 거하게 되네.
매 시간마다 일마다 깨달음을 주셔서 어둠의 시간이 다 마쳐지네.”

뜨거운 마음의 비결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눅 24:32)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예수님을 만나도 그 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모를까 말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가 하고자 하는 말은 ‘뜨거움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비결을 배우지 못한다면, 일상의 단조로운 일들을 만날 때 그 뜨거운 마음이 곧 식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도 챔버스는 아주 흥미로운 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가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무지’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주로 ‘감정’에 의해 휘둘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감정에 따르는 것을 허락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판단 기준은, 그 감정으로 인해 야기될 결과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이라면 절대로 그러한 감정을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 그 감정을 우리의 삶에서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감정은 곧 식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뜨거움을 유지하는 비결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려야 하는 결정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일 때는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결정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영적 민감성’입니다. 영적 민감성이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죠. 챔버스의 표현에 의하면,

“만일 성령이 당신을 요동한다면 가능한 한 많은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잘 알려진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사건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의 번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없으니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걷다가 한쪽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를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낭독하는 것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합니다. 그 때 당시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홉시 15분 전 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strangely warmed)을 느꼈다. 구원을 위해 내가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였다고 나는 느꼈으며 주께서 나의 죄를, 심지어 나까지도 다 거두어 가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나는

전력을 다하여 유별나게 나를 모욕의 대상으로 삼고 또 꺾박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나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방금 내가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 느낀 바를 간증하였다, 그러나 곧 이어 원수는 내 마음에 속삭이기를 “이것은 믿음일 수 없다. 왜냐하면 믿음엔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어디 그 기쁨이 있느냐?”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평강과 죄에 대한 승리는 구원의 대장(the Captain of our salvation)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근본적인 요소이지만, 거듭남의 초기에 보통 나타나는 희락, 특히 깊이 슬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희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어떤 때는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보류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

그렇다. 나는 율법 하에서와 같이 은혜 아래서도 나의 온 힘을 다해 싸웠다. 그러나 나는 자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때때로 정복당하였으나, 이제 나는 항상 정복자(always conqueror)이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뜨거움을 유지하는 길은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맡김’이 쉽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 역시 온 힘을 다해 죄의 감정과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없을 때 우리의 싸움은 패할 수밖에 없으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싸움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회심의 체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산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가지고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보았던 놀라운 광채를 세상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신앙인들이 죄에 굴복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뜨거움이 찾아왔으나 그 뜨거움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뜨거움은 시간이 지나면 식는 것입니다. 뜨거움이 식지 않도록 하는 비결은 주님이 주시는 비전에 끊임없이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신앙의 비결은 뜨거움이 찾아왔을 때 그 뜨거움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 당신에게 찾아왔던 뜨거움을 식지 않도록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묵상레시피 ■ 사무엘상 25:9-35 + 누가복음 24:32

오늘 다윗은 상한 마음으로 무기를 들고 나발의 집을 향합니다.

다윗이 이토록 분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0-11, 14-17절)

나발의 아내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18-20절)

다윗은 상한 감정 중에 무엇을 결심합니까? (21-22절)

다윗의 감정이 야기할 결과는 무엇입니까? (26절)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28-31절)

지금 나의 감정과 정서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것이 야기할만한 결과들은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28-31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17절) (히, 벤 벨리알)

성행이 악한 자, 불량배, 사특한 자, 비류, 혹은 난류(삿19:22). 나발의 목자, 아비가일의 행동으로 유추해 보건데 다윗의 감정은 충동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생명싸개에 싸였을 것이오(29절) (히, 체루라 비츠로르 하하임)

‘싸이다(체루라)’는 묶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 생명싸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1) 생명의 책, 생명이 기록된 문서. 범죄를 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죽음). 2) 생명 묶음. 보자기나 주머니. 보통 후자의 해석을 많이 택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싸개로 싸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의미이다. 혹자는 목자들이 살아있는 짐승의 수를 셀 때 주머니에 돌을 하나씩 집어넣던 것을 떠올리기도 한다.